

[국제]

■반기문 유엔총장 공식업무 돌입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시간으로 2일 밤부터 공식업무에 돌입, 유엔에 첫 한국인 사무총장시대를 연다.

유엔 '한국형 리더십' 새 출발



반 총장은 유엔 개혁과 국제분쟁 해결의 적임자라는 국제사회의 기대 속에 두 달여에 걸친 인수작업을 마치고 이날 세계 최고 외교관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다.

세계 최고 외교관으로 유엔 개혁과 국제분쟁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반 총장은 이날 오전 직원 및 주요 부서장들과 잇따라 만나 위기에 빠진 유엔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 동부시간으로 오전 9시30분(한국시각 2일 밤 11시30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 사무총장 자격으로 첫 발을 들여놓을 반 총장은 '사무총장과의 만남' 시간을 마련, 사무국 직원 및 전 세계 유엔 직원들과 공식적인 상견례를 가진다.

러 대사와 첫 면담, 현안 논의

반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유엔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변화와 개혁을 일궈나

갈 것을 호소한 뒤 화상연결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8개 지역사무소 대표들의 환영인사를 받게 된다.

반 총장은 이어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대사와 만나 국제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후 유엔의 6대 주요 부서장을 면담하고 사무국 각 부서를 돌아보는 것으로 첫 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반 총장은 앞으로 인수기간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무총장 인수선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한 뒤 내년 2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사무차장 인선작업과 함께 유엔 개혁과 국제분쟁 및 기타 같은 산적한 현안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AP "한국에 획기적 이정표"

반 총장은 취임선서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동 지역 분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최근 악화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사태에 대한 중재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반 총장의 공식 활동 개시와 관련 AP통신은 1일 "지난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했던 한국에게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유엔 예산 통제권과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192개국의 유엔 총회가 그간 변화를 꺼려왔던 미국이 앞으로 반 총장 사무총장에게 퇴임한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 재직당시 시작된 유엔의 개혁을 확대하도록 압박을 가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潘총장, 짐도 못 풀고 10월까지 호텔에서 생활"

NYT, 관저 개·보수 내용 소개

뉴욕타임스(NYT)가 새해 첫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 맨해튼에 있는 사무총장 관저의 개·보수로 인해 짐도 풀지 못한채 10월까지 호텔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관저 개보수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1일 임기를 시작한 반 총장이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소말리아 내전, 중동지역 분쟁의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지만 아직 관저에는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엔 총회가 맨해튼 동쪽 이스트강에 접한 '서턴 플레이스'(Sutton Place)의 사무총장 관저를 450만 달러를 들여 개·보수기로 한 데 따라 공사가 끝나는 10월까지 반 총장과 부인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지내야 한다.

반 총장의 총장직 인수기간 대변인 역할을 한 최성 아씨는 "반 총장이 자신의 짐도 풀 수 없는 호텔에서 생활하기 보다는 관저로 바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관저의 개·보수는 그동안 필요성이 계속 요구된 중요한 공사"라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제·주·도

중국인이 많이 찾는 '해외 관광지' 5위에 올랐다.

제주도가 지난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 관광지 5위에 올랐다.

중국의 여행전문 인터넷 사이트 세칭(携程)망은 지난해 가장 인기를 끈 10대 관광지를 설문 조사한 결과 제주도는 홍콩, 싱가포르, 발리, 몰디브에 이어 5위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중국인들에겐 한류의 영향과 함께 남방의 따뜻한 기후와 독특한 화산섬의 풍광,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 사신을 보냈다는 전설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홍콩=연합뉴스

"세계는 지금 흡연과 전쟁중"

홍콩이 1일부터 실내 사업장을 포함해 도시 전체를 '세계 유일의 완전 금연도시'로 선포해 흡연자들을 잔뜩 위축시키고 있다.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해 10월 논란 속에 통과된 금연 조례를 이날부터 정식 시행기로 하고 식당, 술집 등 모든 실내 사업장과 해변, 운동장, 공원, 체육관 등 50만 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자의 천국'인 프랑스에서도 다음달부터 공공장소 흡연이 규제될 예정이다.

도미니크 드 빌랭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2월부터 공공장소 금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표류 승객을 찾아라!"

印尼 여객선 침몰·400여명 실종

인도네시아 여객선 '세노파티 누산타라'호 침몰사고 발생 사흘째인 1일 자바해안에서 해군 구조선이 표류하는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다가서고 있다. 사고 선박에는 모두 628명이 타고 있었으며 200여명에 이르는 승객과 승무원들이 구조됐지만 아직도 400여명은 실종상태다. /AFP=연합뉴스

印尼 여객기 추락...90명 사망, 12명 생존

승객과 승무원 102명을 태우고 1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상공에서 실종된 애덤 항공사 소속 KI-574 국내선 여객기의 잔해가 2일 아침 산악지대에서 발견됐으며 승객 대부분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사누딘 공군기지 사령관 에디 수안토는 이날 엘신타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공군 정찰기를 탄 구조대원들이 서부 술라웨시주(州)의 플라와리 지방 산악지대에서 추락한 여객기

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애덤 항공사의 하르토노 대변인은 탑승 인원 가운데 90명이 숨지고 나머지 12명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생존자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 여객기는 보잉 737-400기종으로 어린이 11명을 포함한 승객 96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02명이 탑승했다.

/방콕=연합뉴스



아민 前 주심판사 "후세인 처형은 불법"

이라크 정부, 동영상 유포 수사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반인륜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주도했던 리즈카르 모함메드 아민 전 주심판사는 이라크 정부의 후세인 처형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1일 지적했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마드(81) 전 총리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처형에

대해 야만적이고 잔인한 공개 살인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지난해 1월 정치적 압력으로 후세인 재판 주심판사를 사임한 아민 판사는 이라크 법률은 이슬람 신도들의 연례 메카 순례(하지)의 종류를 알리는 '이드 알-아드하(희생제)' 기간 중 사형 집행을 금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민 판사는 또 이라크 형법상 사형 집행은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30일이 지난 뒤에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정부는 후세인의 교수형 집행 장면이 생생하게 담긴 휴대전화 동영상 배포 파문과 관련, 1일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사형집행인이 어떻게 휴대전화로 촬영으로 몰래 들어왔는지, 교수대 위에 선 후세인을 조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동영상의 공개가 이라크 종파분쟁에 기름을 부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술라이마니아=헤프본AFP·AP=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knae Younggosi' (국내영고시학원) featuring 'Winter Special Class' (겨울방학특강). The ad includes the school's name, website (www.kknae.com), and contact information (529-0090).

Advertisement for 'Air Conditioner + Heater + Air Purification'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를 1대로).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unit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home comfort and air quality.

Advertisement for 'Cell Banking' (셀뱅킹). It features a large red heart graphic with the text 'Cell Banking' and describes a service for storing and using one's own cells for health and medical purposes.